

2012년 3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

일시 : 2012.3.29(목)

주요 발언 내용

▲ 시청률 데이터 집계 방식 개선되어야

- 가정에서만 시청률을 조사한다면 뉴스채널은 현 시청률 조사 시스템이 불리한 듯, 개선 건의해야 (최종준 위원)
- 가정에서만 설치되어 있고, 뉴미디어 매체의 시청률 집계도 안되는 등 현 방식의 왜곡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. 한사의 노력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 전반적 논의 필요 (김경모 위원)

▲ 사회적 소수자 배려 방안 모색해야

- 사회적 소수자 배려 방안 모색 필요 (이석구 위원)
- 회사는 자막방송을 평일 기준 하루 3시간 방영 중. 청각 장애인 배려를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방침 (회사 측 답변)

▲ 선거 및 정치 보도 개선되어야

- 예측 가능한 사건, 이슈를 보도하면서 해석, 분석 등의 기획력 중요. SNS 등을 연계한 뉴스를 개발해야. 총선이면 스포츠, 팝업창을 만들어 후보의 트윗 내용을 선별하여 보여주는 것 등 차별화 필요.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타당하게 신뢰감 있게 보도해야. 선거를 주요 시간에 보도하는 것은 높이 평가 (김경모 위원)
- 라이벌 빅 매치를 주제로 보도하는 것은 흥미로움 (임영호 위원)
- '이슈 진단 2012 대선'은 총선과 대선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기회였고 대선 주자들의 리더십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음. 그러나 각 지역 경선 발표 보도시 보도순서의 기준 없어 아쉬움 (차경애 위원)
- 정치적 전문지식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 (한박무 위원)
- 정당의 정책 정보를 보도해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(이석구 위원)
- 총선은 정책 보도에 집중해야 (임상혁 위원 모니터링 보고서)

▲ 스포츠 뉴스 관련 의견

- 현재도 뉴스Y 스포츠 비중 낮음. 연합뉴스 스포츠 기사와 뉴스Y 영상의 생동감이 연결되면 좋을 것 (최종준 위원)
- 스포츠 전문 채널과 뉴스 채널의 스포츠 보도 할애 시간 비교는 불합리. 뉴스Y가 스포츠 보도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 (임영호 위원)

▲ 단순 보도보다는 분석적인 보도가 필요

- 많은 보도 중에 스케치성 보도가 계속해서 방송돼 궁금증이 해결되지도 않고 재

미 없음 (박영상 위원장)

- 라이브의 함정 주의해야. 단순 현장 스케치만 중계하는 것은 의미 없어. 담당 기자의 시선이 담긴 리포트가 필요 (한박무 위원)
-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생중계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의미, 성과, 사회의 흐름들을 분석해서 보도해야 (이석구 위원)
- 전화연결, 스튜디오 인터뷰 등이 사안에 대한 이해는 도움되나 객관적으로 해석할 필요 (차경애 위원)

▲ 영상, 데이터, 그래픽 등 적극적인 활용 필요

- 영상매체는 활자보다 영상이 중요하므로 영상 확보가 중요 (김정연 위원)
- 2차 공천 발표 시 뉴스와이는 오디오만 나오고 그림 없어 아쉬움. '북한은 오늘'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생활, 정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그래픽 활용해야 (한박무 위원)
- '마켓워치'에서 그래프의 하강과 상승을 표현하는 색이 반대로 적용되고 있음. 하강이 초록색이고 상승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 정정 필요 (홍승용 위원)

▲ 화면 재구성 필요

- 한 화면에 여러 정보가 많으니 짜임새 있게 정리해야. 화면이 너무 현란. 화면이 바뀔때 보이는 브릿지 영상도 너무 화려 (박영상 위원장)
- 브릿지 프로그램, 앵커세트 등 전반적으로 역동성은 있음. 그러나 안정성이 부족 (한박무 위원)
- 앵커 사이드 화면에 주요 사진을 넣어 보도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해 집중도를 높여주는데 검토 필요(이석구 위원)
- 시계 노출이 한동안 새벽시간대 나오다가 지금은 나오지 않음 (임영호 위원)

▲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도 되어야

- 총선 보도에서 공정성 시비 때문인지 시간 등을 양쪽에 배분. 물리적 배분이 아닌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. 내용이 좋으면 더 할애 가능 (박영상 위원장)
- 원전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보도할 필요 (이석구 위원)
- 한미FTA 관련 16일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는 정부 입장만을 보도한 것. 한쪽으로 치우침을 경계해야 (차경애 위원)
- 3월 6일 지역 포커스에서 FTA 관련 지자체 대책 마련에 대해 농가에 대한 보도 좋았음. 다각적 각도에서의 보도 필요 (차경애 위원)

▲ 전문가 섭외 신중해야

- 전문가 섭외에 신중해야. 가령 수능 이후 입시 학원 강사들을 섭외해 분석하게 하는 것은 사교육 조장할 수 있음 (박영상 위원장)
- 핵안보 전문가 회담에서 새누리당 1번 비례대표 민병주 박사가 출연. 물리학자이기에 전문가 섭외가 아쉬움 (이상목 위원)

▲ 뉴스 소재의 다양성 필요

- '찾아가는뉴스'는 내용의 중복이 많음. 내용에 대해 미리 파악이 되니 흥미가 떨어짐 (박영상 위원장)
- 뉴스 매 시간별로 뉴스 중간에 이주민, 장애인 등의 소외 계층의 뉴스를 발굴하는 것도 좋을 듯 (이석구 위원)
- 아카이브를 활용한 소재의 차별화가 관건(홍승용 위원)
- 시사 프로그램 강화 필요성 (임상혁 위원 모니터링 보고서)
- ▲ 뉴스의 시의성, 중요도에 따른 순서도 고려해야
- 3월 15일 KCC 추승균 선수 은퇴 인터뷰, 3대에 걸친 해병대 입소 관련 보도 등이 급박한 것들이 아니라면 뉴스 마지막에 넣는 마감용이 맞을 것 (박영상 위원장)
- 핵정상회의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음 (박영상 위원장)
-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 '북한은 오늘' 방영 주제가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언급해 적합치 않았음 (한박무 위원, 차경애 위원)
- ▲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관련
-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닌 음식과 옷 등의 정보를 강화해야.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시간대별 가정, 경제 뉴스 등 특화로 타깃계층을 고려해 차별화해야 (박영상 위원장)
- 이슈에 대한 포커스 강화해야 (홍승용 위원)
-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내용 방영 바람직 (차경애 위원)
- 생중계 화면이 급하게 넘어갈 때 중간 정리 필요 (차경애 위원)
- 앵커 말투, 중간에 불필요한 습관성 추임새에 대한 주의와 연습 필요 (이석구 위원)
- '마켓워치'에서 전화인터뷰 진행시 질문과 다른 답변이 있어 사전 협의 필요 (이석구 위원)
- ▲ 뉴스와이 홍보채널 개선 및 강화
- TV와 홈페이지의 연동 필요. 바쁜 젊은 층에게 특히 필요.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야. 대학 게시판에 뉴스Y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(김경모 위원)
- DMB, 라디오 등에 나올 수 있도록 투자해야 (홍승용 위원)
- English Y를 해석해서 강의 비슷하게 홈페이지에 올리면 좋은 자료가 될 것 (한박무 위원, 이상목 위원)
- SNS를 적극 활용한 인지도 제고 필요(임상혁 위원 모니터링 보고서)
- ▲ 자막 뉴스 관련 의견
- 하단에 흐르는 자막 뉴스로 인해 본 뉴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짐(김정연 위원), 뉴스 보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흐르는 자막도 괜찮다고 생각(임영호 위원), 젊은층에겐 흐르는 자막도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됨(김정연 위원). (끝).